

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연극*

- 이국정보로서의 조선통신사와 근세 일본인의 이국관 -

박 려 옥**

鎖國時代、朝鮮通信使は朝鮮及び異国情報を発信する役割を果たした。通信使がもたらした異国情報は当時のメディア、即ち出版物、各地の祭礼、絵画作品を通じて伝わり広まったのである。中でも世間の話題とニュースに敏感であった演劇界に絶好の素材を提供した。

本稿では通信使の訪日を背景に上演された近松門左衛門の『大織冠』をはじめ、近世演劇の大織冠物の展開に注目した。そもそも大織冠の世界は唐の皇帝との婚姻、数々の宝物を持ってやってくる使者、宝物をめぐる繰り広がる竜宮との争奪戦など、異国や異界と縁が深い。その異国の使者と宝物の行方は中・近世演劇で様々に展開し、中には異国に対する自国意識が強まったりするものもある。その一方、通信使の影響も見られる。異国の使者の来訪をイメージ化する過程で通信使の姿を借用しているなどの事例である。またそこには次第に通信使を貢物を奉る調貢使と見なす視線も表出し、近世日本人の異国観の一端を窺わせる。これは当時の朝鮮観を反映したもので、通信使情報を取り扱った絵画や出版物においても同様の例が確認できる。今後は出版物、特に行列記類を対象に当時の異国観、朝鮮像についても考察を進めたい。

キーワード：朝鮮通信使、淨瑠璃、歌舞伎、大織冠物、調貢使、朝鮮像
(조선통신사, 조루리, 가부키, 다이쇼칸모노, 조공사절, 조선상)

1. 머리말

왜국정책 하의 근세 일본에서 조선통신사는 문화사절단¹⁾이자, 조선과 이국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신사절단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4-A00170]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전임 연구원

1) 화가, 한시와 서예에 능한 자, 악사,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馬上才) 등 다양한 인제가 파견되어 문화사절의 역할을 다하였다.

의관, 그들의 언어, 연주되는 음악, 소지품 등 통신사절 관련 제 사항이 이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곧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정보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표적 이국 정보로 통용되어 재생산, 변용되는 것도 있었다.²⁾

통신사 방일로 비롯된 정보는 당시의 각종 매체들 즉 출판물, 각지의 제례,³⁾ 회화 작품들을 통해 재현되고 전파되었으며, 연극 작품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국정보 발신자로서의 조선통신사 역할에 주목하여, 근세연극 '大織冠物' 작품에 나타난 통신사의 영향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 정보를 전한 당시의 매체를 시야에 넣어, 근세 일본인의 이국관(異國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근세 이전의 전통적 大織冠 세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 근세 이전의 大織冠 세계

2.1 鎌足 이야기

중세 특히 근세연극계에서는 大織冠, 즉 가마타리(鎌足, 614-669) 및 주변인물이 등장하는 일련의 '大織冠物' 작품들이 상연되었다. 가마타리는 나카노오에(中大兄) 황자⁴⁾를 도와 소가노 이루카(蘇我入鹿, ?-645)를 멸망시켜, 다이카(大化) 개신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죽음을 앞두고 덴지(天智) 천황으로부터 大織冠이라는 최고 관위와 후지와라(藤原) 성씨를 하사받았는데, 가마타리만이 이 관위를 받았기에 大織冠은 곧 가마타리를 뜻한다. 중·근세 大織冠物の 원류라

2) 통신사 행렬 중의 의관과 의장기가 표상정보로서 이국, 이국인 묘사에 차용된 회화 및 연극 작품 사례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고찰한 바 있다.

박려옥(2013) 「조선통신사 정보와 일본 근세연극-통신사 행렬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61, 일본어문학회, pp.282-292.

3) 도쿄의 간다묘진(神田明神)과 산노곤겐(山王権現), 나고야 도쇼구(東照宮)의 마쓰리에서는 통신사 행렬을 흉내 낸 가장행렬(唐人行列)이 행해졌다.

4) 후일, 덴지(天智) 천황.

할 수 있는 『讚州志度道場緣起』가 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가마타리는 이루카 처단에 성공하여, 후지와라 성과 大織冠의 관위를 하사받았다. 그의 사후, 적자 후히토(不比等)는 아버지를 위해 가람을 세우고, 당나라 고종 황제와 혼인한 딸은 이를 돕기 위해 ‘화원경(花原磬)’,⁶⁾ ‘사빈석(泗浜石)’,⁷⁾ ‘불향배주(不向背珠)’⁸⁾를 일본에 보낸다. 그러나 도중, 사누키(讃岐) 바다에서 구슬을 용궁에 빼앗겨 버리고, 이를 되찾기 위해 후히토는 그 곳의 해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해녀는 아들 후사사키(房前)를 후지와라 가문의 적자로 삼을 것을 약속 받고, 용궁에 이르러 구슬을 손에 넣는다. 용왕에게 화를 입은 해녀는 결국 목숨을 잃으나, 구슬은 그녀의 가슴 아래 낸 상처 안에 무사히 숨겨져 있었다. 후히토는 아내의 무덤에 정사(精舍)를 세우고, 나라(奈良)로 돌아와 고후쿠지(興福寺)의 금당본존미간 사이에 구슬을 박아 후대에까지 전하게 되었다. 십년 후,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후사사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법화팔강(法華八講)을 행하여 극락왕생을 빌었다.

일본과 당나라, 그리고 용궁이라는 이국과 이계와의 관계를 배경으로 고후쿠지(興福寺)의 보물 유래 및 해녀와 후사사키 모자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후 가마타리 이야기는 謡曲 『海土』, 幸若舞 『入鹿』, 『大織冠』 등 중세연극의 소재가 되었으며,⁹⁾ 이를 기반으로 근세연극에서는 다양한 大織冠物 작품을 창출하여,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가마타리 이야기의 전승에서 당과 일본의 관계, 특히 일본의 대외의식이 표출되는 계기가 바로 가마타리 딸과 당 황제와의 혼인¹⁰⁾이다.

5) 이외에도 『鎌足伝』, 『多武峰緣起』, 『讚州志度道場緣起』가 가마타리의 이야기를 전한다.

6) 중국 산시성 화원(華原) 돌로 만든 악기 경.

7) 중국 산둥성 사수(泗水) 근방에서 출토되는 돌로서 벼루, 악기, 경 등에 사용.

8)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정면을 향한다는 불상이 새겨진 구슬.

9) 謡曲 『海土』는 어머니의 영혼을 달래는 아들 후사사키의 이야기, 幸若舞 『入鹿』는 가마타리의 이루카 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幸若舞 『大織冠』은 이국 사신이 가져온 보물과 이를 노리는 용궁과의 대립, 해녀의 구슬 탈환을 그리고 있다.

10) 미상. 가마타리의 두 딸은 히카미노 이라쓰메(氷上娘, ?-682)와 이오에노 이

〈그림 1〉 고후쿠지 소장 ‘華原磬’, ‘泗浜浮磬’¹¹⁾

2.2 이국 사신과 보물 - 幸若舞 『大織冠』

중세 幸若舞 『大織冠』에서는 당나라 황제와의 혼인 및 만호(万户) 장군¹²⁾을 사신으로 하여 진귀한 보물들이 일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大織冠은 일본이라는 소국의 왕의 신하 신분으로 어찌 이국의 대왕을 사위로 맞을 수가 있겠느냐며, 처음에는 칙사에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중략) 일본은 소국이나, 지혜가 으뜸가는 나라이다. (중략) 왕비는 ‘나는 소국의 사람인데도 대국의 왕비가 되었다. 그 명예를 일본에 남겨야겠구나. 아버지께서 고후쿠지의 금당과 석가상을 세우신다니 법당에 불구(仏具)와 법구(法具)를 보내 후세의 징표로 삼고 싶구나’ 하고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먼저 화원경, 사빈석(중략) 범어로 된 법화경을 아난존자(阿難尊者)가 다라(多羅)나무 잎으로 사경한 칠첩책, 유리 물병, 붉은 전단(梅檀)으로 만든 경(磬) 받침, 유리 꽃병, 전단으로 만든 팔걸이, 니구타(尼拘陀) 나무로 만든 염주, 황색 호랑이 가죽, 금색 사자의 가죽, 불취¹³⁾ 가죽 세장. 그리고 붉은 전단으로 오촌(五寸)의 석가를 만들어 붉은 사리를 박

라쓰메(五百重娘, 생물년 미상)로, 덴무(天武) 천황의 후궁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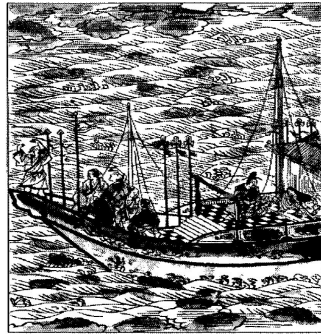
11) 당나라 시대의 ‘銅造華原磬’과 ‘石造泗浜浮磬’, 図録『興福寺』、pp.27-28.

12) ‘万人’의 장군이라는 뜻에서 유래. 원과 명나라 때 병사제도로 등급을 ‘万户’, ‘千戸’, ‘百戸’로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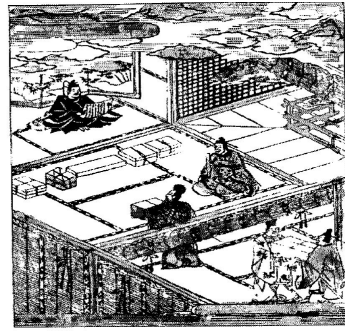
13) 중국 남부 깊은 산속에 사는 상상의 쥐. 가죽과 털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한다.

아 팔촌(八寸)의 수정 탑 안에 넣은 무가보주(無価宝珠) 구슬
을 으뜸가는 보물로 하여, 편지와 함께 돌로 된 상자에 넣어
보내셨다.¹⁴⁾ (幸若舞『大織冠』)

당나라 태종과의 혼사를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밀줄 친 바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즉, 가마타리는 처음에는 ‘소국의 왕의 신하’
라는 입장에서 거절하나, 거듭되는 요청에 결국 딸을 시집보낸다.
또한, 일본은 ‘소국이나, 지혜가 으뜸가는 나라’로 불리기도 하며,
‘소국 사람으로 대국의 왕비’가 된 딸은 개인적 영광과 종교적 이유
로 보물을 아버지에게 보낸다. 다음은 보물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
는 만호 장군과 그를 접객하는 가마타리의 모습이다.



〈그림 2〉 만호 장군의 방일



〈그림 3〉 가마타리와 만호 장군

14) ‘大織冠をご覧じて、我は、これ日域とて、小国の王の臣下とし、いかにとして異国の大王を左右なく婿に取べきと、一度は勅使を辞退ある。(中略)そも、本朝と申は、小国なりとは申せども、智慧第一の国也。(中略)後の宮思召、我はこれ、小国の者とありながら、大国の後にそなはりたる、その高名を、日本に残してこそと思し召し、御父大織冠、興福寺の金堂、同じき釈迦の霊像を御建立あるべきに、彼御堂の施入に、仏具法具贈つて、末代のしるし共なさばやと思召、揃へ給ふ宝には、まづ華原磬、泗浜石。(中略)梵本の法花経を、多羅葉にて、阿難尊者の遊ばしたる七帖。瑠璃の水瓶、赤梅檀の磬台、吠瑠璃の花立、梅檀の脇息、尼拘陀樹の数珠一連、黄虎の虎の皮、金色の獅子の皮、火鼠の皮三枚。かゝる宝のその中に、赤梅檀の御衣木にて、五寸の釈迦を作りたて、肉色の御舍利を御身に作り籠めながら、方八寸の水晶の塔の中に納めて、無価宝珠と名付て、是を一の重宝にし、送り文を別紙に書き、石の箱に納めて、贈らせ給ひけるとかや。’
麻原美子・北原保雄校注(1994)『舞の本』新日本古典文学大系59、岩波書店、p.17、p.20.

본 장면은 근세 大織冠物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 그 중에는 통신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전개 양상을 통해 당시 일본인의 이국관, 조선관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3. 조선통신사와 大織冠 세계

3.1 근세 大織冠物の 전개

다음은 당나라 황제와의 혼인¹⁵⁾으로 비롯된 만호 장군의 내방 및 보물의 행방을 그리는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¹⁶⁾

〈표 1〉 근세 大織冠物の 전개

작품	현상대상	비고
A 『太織冠』 (1675, 延宝三年)	帝	-
B 『大しよくはん』 (1680, 延宝八年)	大日本国 鎌足公	중국 사백여 주의 총왕. 당 태종의 아들 고종 황제라 하여 위세를 떨치는 황제가 계셨다. 예전부터 군자의 길을 배워 오륜삼현의 서적을 섭렵하고, 요임금과 순임금(暁舜)의 고풍을 일으켜 ¹⁷⁾
C 『大織冠』 (1688, 元禄元年)	○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인가. 대당나라(大唐)로부터 여러 공물을 일본에 보내왔다. 그 임무를 맡은 만호 장군이 龍女에게 속아 가장 중요한 보물인 면향불배(面向不背) 구슬을 잃어버렸다. ¹⁸⁾

15) 작품에 따라서 고종, 혹은 태종으로 설정되어 있다.

16) 본고에서는 우선 근세초기부터 호레키·메이와(宝暦・明和, 1751-1771) 이전의正本이 현존하는 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는 명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며, 『』는 조루리, 「」는 가부키 작품을 가리킨다.

17) ‘しな四百よしのそうわう。たうのたいそうの御子にかうそうくはうていと申奉り。みせいのみかど。おはします。もとよりくんしの道をまなび。五りん三けんのしよにかなひていげうぐしゆんのこふうをおこし。’ 古浄瑠璃正本集刊行会(1990) 『古浄瑠璃正本集 角太夫編』第一、大学堂書店、p.363.

18) ‘この四五年いせんのことか。大唐よりさまくみつぎもの日本へおくらせ給ふ。そ

D 『新大織冠水がらくり』 (1692, 元禄五年)	帝	대당나라(大唐) 사백여 주의 주인을 고종 황제라 한다. 일본은 소국이지만, 군자국이라는 이름을 얻어 소국의 신하인 이 가마타리가 대국의 황제를 사위로 삼으면 이쪽은 부모, 저쪽은 자식. 그러니 대당나라(大唐)의 고종황제는 일본의 신하와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¹⁹⁾
E 『大伽藍宝物鏡』 (1696추정, 元禄九年カ)	帝	상동
F 『大職官二代玉取』 (1693이전, 元禄六年前)	○	이 때, 예전에 중국(漢土)에서 조공사절(貢物の唐使)로 건너온 만호장군. (중략) 입당(入唐)하기 위해 배를 내었으나, 부산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수백 척의 배가 여기저기 흩어져 ²⁰⁾
G 『面向不背玉』 (1697추정, 元禄十年カ)	帝	대일본 쇼무(聖武) 천황의 거듭된 요청으로 당나라 태종 황제가 세 가지 보물을 보내오셨다. ²¹⁾

の奉公まんこしやうぐん竜女にたぶらかされ。第一のてうほう。めんこうふはる玉をとられ。' 般庵野間光辰先生華甲記念会(1969) 『絵入狂言本集』上、近世文芸叢刊、p.30.

19) '大たう四百よしうの御あるじ。かうそうくはうていと申奉る。然に日本は小こくなれ共くんしこくのなをゑ', '小こくのしんか此かまたりがむすめをもつて。大こくの君をむこに取たれはこなたはおや方。あなたは子かた。然れは大たうのくわうていは。日本我きみのしんかどうじにあらずや。' 古淨瑠璃正本集刊行会(1994) 『古淨瑠璃正本集 角太夫編』第三、大学堂書店、p.422.

20) 'かゝる所に。一とせかんどより。みつぎものゝとうしとて。おしわたりたる万子將軍。(中略)それがしにつとうのしゆつせん。ふさんかいのおきに。して。たい風はらんをくつがへし。す百そうの舟共。方々へふきちらされ。' 鳥居フミ子校訂(1972) 『土佐淨瑠璃正本集』第一、角川書店、p.19.

21) '大日本聖武天皇の重望によつて、唐土太宗皇帝より、三つの宝物を渡さるゝ' 高野辰之・黒木勘藏校訂(1925) 『元禄歌舞伎傑作集』下、早稲田大学出版部、p.161.

H 「入鹿大臣」 (1697이후 추정, 元禄十年以後力)	帝	상동
I 「大職冠二度珠取」 (1701, 元禄十四年)	帝	황제의 누님은 당나라 태종 황제와 혼례를 올려 지난 해 만호 장군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²²⁾
J 近松作 『大職冠』 (1711, 正徳元年)	帝	*통신사절의 행렬과 헌상(후술)
K 『万戸將軍唐日記』 (1747, 延享四年)	帝	*통신사절(후술)

눈에 띄는 변화로 B 『大しよくはん』을 제외하면, 일본의 천황에게 보물이 바쳐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양국의 관계 또한 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종래의 '소국 일본'과는 다른 자국의식이 표출된 작품도 등장한다. 즉, B 『大しよくはん』은 '군자의 길을 배운' 고종 황제의 성품을 들어 군자국과 혼인을 맺는 일본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물은 '대일본국 가마타리 공'에게 보내진다. 이에 비해 D 『新大織冠水がらくり』와 E 『大伽藍宝物鏡』에서는 일본을 '소국이지만 군자국'으로 표현하고, 가마타리는 사위인 고종을 '일본의 신하'로 칭하고 있다.

이후 작품에서는 한층 더 대외적, 국가적인 것으로 각색되는데, G 「面向不背玉」 및 H 「入鹿大臣」에서는 '대일본 쇼무 천황'의 요청으로 보물이 전래되며, I 「大職冠二度珠取」에서는 천황의 여자 형제가 당나라 태종과 혼인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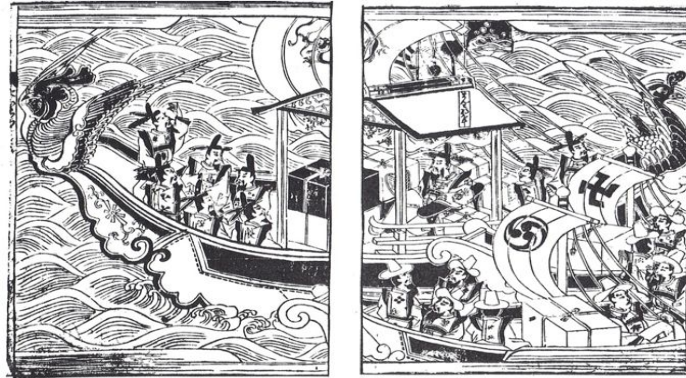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 가운데, 통신사가 그림자를 드리운 사례도 발견된다.

3.2 조선통신사의 영향

먼저 다음 〈그림 4〉에 나타난 A 『太織冠』의 삽화에 주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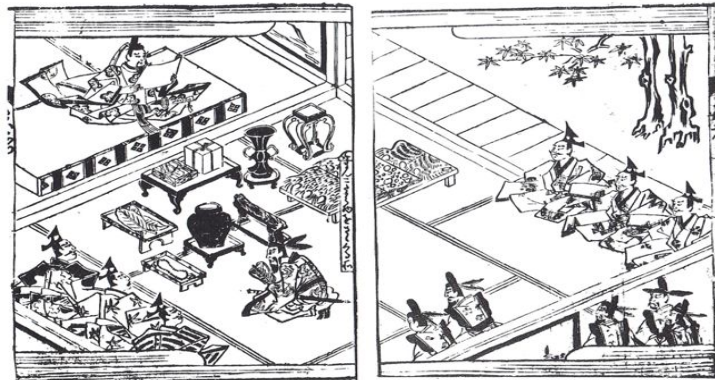
22) '然るにみかどの御あねみやはもろこしの大そうくわうていと御こんれいあるにつき一とせまんこしやうぐん三つのたからをもち渡り給へるに'

佐藤恵里・鳥越文蔵編(1987) 『江戸板狂言本』 古典文庫第四八八冊, p.53.



〈그림 4〉 만호 장군의 방일 (『太織冠』)

이는 만호 장군이 각종 보물들을 싣고 일본으로 오는 장면으로, 중세 幸若舞『大織冠』의 삽화(그림 2 참조)에 비해 배와 인원의 규모가 커지고 호화로움이 더해졌다. 그런데, 아래 배에 나눠 탄 만호 장군의 수행원들의 모습은 갓을 쓴 통신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²³⁾ 이와 더불어 본 작품에는 幸若舞『大織冠』과 동일한 구도로(그림 3 참조) 만호 장군이 보물을 헌상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으나, 그 대상은 가마타리가 아니라 일본의 천황으로 바뀌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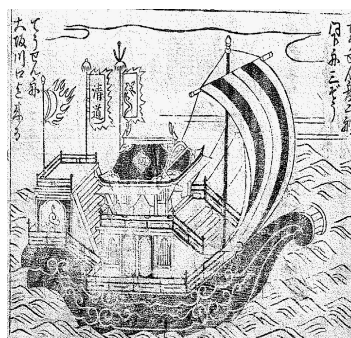
〈그림 5〉 천황과 만호 장군 (『太織冠』)

23) 이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지적한 바 있다.

朴麗玉(2011) 「近松の作品と朝鮮通信使-『大織冠』の場合-」 『国語国文』第80卷3号、京都大学文学部 国語国文学研究室、p.30.

그리고 C 『大織冠』에서는 만호 장군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인가. 대당나라(大唐)로부터 여러 공물을 일본에 보내왔다.’라는 기술이 더해진다. 이는 6년 전인 1682년의 제 7차 통신사의 방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주의할 것은 종래 당으로부터의 선물을 ‘貢ぎ物’, 즉 ‘조공’이라 칭한 것이다.

통신사 영향은 D 『新大織冠水がらくり』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만호 장군이 일본으로 오던 중, 보물을 노리는 竜女와 만나는 장면으로, 만호 장군이 탄 배는 통신사 배를 방불케 한다.



〈그림 6〉 만호 장군의 배(『新大織冠水がらくり』) / 통신사의 배²⁴⁾

만호 장군과 통신사의 결합은 F 『大職官二代玉取』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즉, 만호 장군이 ‘부산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관객들에게 통신사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여기서도 만호 장군은 ‘조공사절(貢物の唐使)’로 불린다.

이윽고, 통신사 방일을 앞두고 상연된 지카마쓰 문자에문(近松門左衛門, 1653-1724)의 J 『大織冠』에서 만호 장군은 곧 통신사절을 의미하게 된다. 다음은 만호 장군의 헌상과 사절단의 입궁 장면으로, ‘마상재(馬上才)’의 오기(誤記)로 보이는 ‘馬才官’ 이외에는

24) 『朝鮮人大行列記大全』(1763 宝暦十三年、京都大学図書館)

오사카에 입항한 통신사 배를 묘사한 것이다. 통신사가 타고 온 배는 바닥이 깊어서 입항할 때는 막부의 배로 갈아탔는데, 이를 수호하는 수많은 막부의 배가 오사카 항과 요도가와(淀川)에서 퍼레이드를 펼쳐, 장관을 연출하였다.

실제 통신사 직책을 사용하는 등, 에도성에서의 통신사절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벌써 화합의 의식이 끝나자 만호 장군은 스무여 종의 보물을 바치고 (중략) 만호는 우모로 된 기와 창을 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상판사(上判事), 도훈도(都訓導), 군관(軍官), 사자관(寫字官), 마재관(馬才官), 사령(使令) 및 소동자(小童)는 열을 맞추어 입궁하여 마루에 고개를 숙인다.²⁵⁾ (『大職冠』)

이후, K 『万戸將軍唐日記』도 상연시기²⁶⁾로 추측컨대, 통신사 방일 소식이 작품 성립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작품에서도 입궁하는 만호 장군의 행렬 묘사에 통신사 행렬을 차용²⁷⁾하고 있으며, 만호 장군이 귀국한 이후에도 경사가 있을 때 '조공'을 바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이 근세 大職冠物에서는 보물 전래와 현상 대상의 각색이 이루어지면서 이국에 대한 자국의식이 강화되는 전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만호 장군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모습을 투영시키거나, 혹은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보는 시선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세 일본인의 이국관, 조선관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카마쓰의 『大職冠』 및 통신사 정보를 전한 당시 매체의 사례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25) '既に和睦の。事整ひ万戸將軍献ずる所。并余種の宝物(中略) 万戸は羽旄の幡鉦八音の管弦を奏し。上判事都訓導。軍官寫字官馬才官。使令及唱小童子列を正して参内し大床に冠を傾くる。' 原道生ほか3人校注(1993) 『近松淨瑠璃集』上、岩波書店、pp.389-390.

26) 본 작품은 제 10차 통신사 방일(1748년) 한 해 전에 상연되었다.

27) '음악소리, 팔음을 연주하며, 우모로 된 기를 앞세우고, 의관을 바르게 하여(중략)소동에게 양산으로 가리게 하여(管絃の調。八音を奏しつつ。羽旄の旗を先に立。衣冠改め(中略)小童子に衣笠を被はせ)'

古典籍閲覧ポータルデータベース <http://www.dh-jac.net>(2012.10.3.검색)

4. 조선통신사와 미디어

4.1 조선통신사 방일과 근세연극 -淨瑠璃『大職冠』

통신사의 방일은 새로운 정보와 뉴스성 화제에 민감하였던 연극계에 호기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기와모노(際物)’²⁸⁾에서 보듯이 근세연극은 일종의 미디어 기능을 하였는데, 대표적 사례로 ‘唐人殺し物’²⁹⁾을 형성하기에 이른 ‘최천종 살해사건’²⁹⁾을 들 수 있다.

통신사 방일 소식은 근세연극계의 대표적 작가인 지카마쓰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바로, 1711년의 제8차 통신사 방일을 배경으로 오사카에서 상연된 조루리 작품 『大職冠』(1711 正徳元年)이다.³⁰⁾ 통신사와 관련된 장면³¹⁾ 가운데, 등장인물이 ‘唐使’ 만호 장군의 행렬 책자를 행상하는 장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인 행렬, 당인 행렬. 통역에 쓰인 말, 진상물, 선물, 보물을 자세히 적은 상하로 6전, 한 권은 3전. 3천만리 저 너머까지 빠짐없이 알 수 있는 당일 행렬”이라 외치며 행상한다. “이번에 당

28) 가부키와 조루리는 당시 유행 및 시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정사(情死), 살인, 간통 등의 뉴스를 각색하여 상연하였는데 이를 ‘기와모노(際物)’라 한다.

29) 1764년, 스즈키 덴조(鈴木伝蔵)가 통신사절단의 일원인 최천종을 살해한 사건으로, 『世話料理鱸庖丁』(1767 明和四年) 이후 동 사건을 다룬 일련의 작품(唐人殺し物)이 상연되었다. 다음은 한일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이다.

池内敏(1999) 『唐人殺しの世界—近世民衆の朝鮮認識』 臨川書店、pp.1-190.

박찬기(2001) 「제 2부 「도진고로시(唐人殺し)의 세계와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보고서, pp.115-241.

30) 본 작품이 통신사 방일을 소재로 상연된 것은 일찍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藤井乙男著(1927) 『近松全集』第九卷、朝日新聞社、p.506. 解説(藤井乙男)

原道生ほか3人校注(1993) 『近松淨瑠璃集』上、岩波書店、p.328. 解説(原道生)

31) 선행연구에서는 통신사를 맞는 시정의 준비, 행렬 책자를 행상하는 장면 및 통신사 행렬에 대해 지적하였다.

近松書誌研究会(1981) 『正本近松全集』第十一卷、勉誠社、p.411. 解題(近石泰秋)

原道生ほか3人校注(1993) 『近松淨瑠璃集』上、岩波書店、pp.333-334、p.390. 脚注(原道生)

한편, 줄고에서는 오사카에서의 배 행렬 및 당시 조선과 에도막부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朴麗玉(2011) 「近松の作品と朝鮮通信使—『大職冠』の場合—」 『国語国文』第80卷3号、京都大学文学部 国語学国文学研究室、pp.33-35.

나라 황제로부터 大職冠 가마타리 공에게 진상한 것은 화원경(花原磬), 사빈석(泗濱石), 면향불배 구슬(面向不背玉), 코끼리 한 마리, 호랑이와 표범이 두 마리, 꽃이 피는 뿌리가 달린 침향(伽羅) 다섯 뿌리, 열매 맺는 가지모양 산호가 열 뿌리, 키가 여섯 치인 소인도의 부부 한 쌍, 당(唐) 사자의 털이불이 서른 장, 붉은 전단(梅檀)으로 만든 목욕통, 명명조(命命鳥)³²⁾의 병아리, 공자 자필의 논어와 대학, 일리사방(一里四方)의 담요가 백 장, 오색 얼음사탕이 천 근, 사향 고양이, 꿈을 먹는 맥(獾).³³⁾ 중국 심양 강에 사는 성성(猩猩)³⁴⁾이 두 마리. 그러나 그 중 한 마리는 술을 못 마시고 호두로 만든 떡을 먹이로 한다. 그 밖에 다다미 여덟 장³⁵⁾ 넓이의 다과가 두 상자, 팔척 둘레의 사탕 한 절, 기린 절임, 싱겁게 절인 인어, 등용의 살아있는 잉어까지 일본의 아씨의 출세를 축하하는 선물"이라 소리 높여 읽자, 길 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모두들 사 갔다.³⁶⁾ (『大職冠』)

‘진상물, 선물, 보물’로 종래의 보물은 물론, 대표적 박래품과 이국 동물들, 혹은 상상속의 인물 및 동식물까지 열거되어 있어, 이국정취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大職冠의 세계를 계승하는 한편, 통신사에 대한 관심사를 무대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출판사(板元)는 통신사 방일에 맞춰 행렬의 개요를 기재한 책자인 행렬기(行列記)를 간행하였는데, 통신사의 ‘헌상물’은 주요한 정보로 취급되었다.

32) 불전에 나오는 머리가 둘인 새.

33) 인간이 꾸는 악몽을 먹는다는 상상의 동물.

34)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짐승으로, 술을 좋아한다고 한다.

35) 다다미 한 장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910mm×1820mm이다.

36) ‘唐人の行列唐人の行列。通事詞の次第。進物土産宝物の次第。つぶさに記し上下は六錢一冊で。三錢万里のあなた迄つぶさに知れる。唐人の行列と読立てこそ売りにけれ。今度唐の帝より大職冠鎌足公への御進上。花原磬泗濱石面向不背の玉。象一疋虎豹二疋。花の咲根付きの伽羅五本。実の成る枝珊瑚樹十本小人島の夫婦。背は六寸唐獅子の毛布団卅枚。赤梅檀の水風呂桶命く鳥の雛。孔子の自筆の論語大学。一里四方の毛氈百枚五色の水砂糖千斤。麝香の猫夢食ひ獾。尋陽の江の生猩々二疋。但内一疋は下戸にて胡桃餅を飼飼ひとす。其外八疊敷の落雁二箱。八尺周りの金平糖一折。麒麟の粕漬薄塩の人魚。竜門の生鯉迄日本の姫君の。御出世祝ふ進物なりと読立れば。往来の貴賤珍しがり皆々買ふてぞ通りける。’ 原道生ほか3人校注(1993)『近松浄瑠璃集』上、岩波書店、p.334.

4.2 조선통신사 방일과 출판계 - 行列記

연극계와 더불어 통신사 방일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출판계이다. 통신사 행렬을 참관하기 위한 오늘날의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는 행렬기가 출판되어 행상을 통해 유포된 것이다.

일례로 교토의 출판사에서 간행한 『朝鮮人來朝物語』(1748 延享五年)³⁷⁾에는 조선의 역사를 시작으로 한양에서 에도까지의 여정, 정사 이하 관직명과 인원수, 접대를 맡은 각지의 막부 관계자들, 역대 통신사의 연대기가 실려 있다. 이외에도 통신사 행렬, 각종 악기와 무구, 배가 삽화로 수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행렬기는 통신사와 관련된 제 정보를 전하는 동시에 통신사, 나아가 조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앞서 본 지카마쓰의 『大職冠』에서 행상인으로 분한 등장 인물이 '당인 행렬, 통역에 쓰인 말, 진상물, 선물, 보물'이라 외쳤듯이 행렬 그림과 함께 조선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조선어(通事唐人詞)’(상단)



〈그림 7〉『朝鮮人來朝物語』(1748 延享五年、京都大学附属図書館)

행렬 책자가 전하는 정보 가운데, 지카마쓰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각색한 것이 헌상물이었다. 위 행렬기의 '헌상물목록'에는 '상등

37) 교토 菊屋七郎兵衛板. 1748년 제 10차 방일을 앞두고 간행된 본 행렬기는 1719년의 제 9차 방일을 참고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단, 1711년의 방일과 관련이 있는 1719년의 행렬기는 거의 현존하지 않는다.

의 말, 매, 호랑이 가죽, 범 가죽, 인삼, 상어, 양탄자, 성성이 가죽, 상등의 비단, 색실로 수놓은 비단, 모시, 삼베, 황조포, 꽃무늬 양탄자, 색지, 청밀, 황밀³⁸⁾ 등이 있다. ‘성성이 가죽(猩々皮)’을 제외하고는 통신사절의 선물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헌상물목록(献上物目録)’(상단)



〈그림 8〉『朝鮮人來朝物語』(1748 延享五年、京都大学附属図書館)

통신사는 국서와 함께 진귀한 선물을 지참하고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참고로 1711년 사절단이 일본에 가져 간 선물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답례품은 다음과 같다.

38) ‘上馬, 鷹, 虎皮, 豹皮, 人參, 鮫, 毛氈, 猩々皮, 大繻子, 大段子, 苧布, 麻布, 黄照布, 花毛氈, 色紙, 清蜜, 黄蜜’

〈표 2〉 1711년 통신사 방일 시 선물 및 답례품³⁹⁾

	쇼군(將軍)	쓰시마 번주(藩主)	막부 가로(家老)
선물 품목 →	인삼, 대유자, 대단자, 색 깔 있는 붉은 실, 생모시, 노란 모시, 검은 모시, 호 랑이 가죽, 여우 가죽, 담 비 가죽, 상어 가죽, 색종 이, 붓, 먹, 황랍, 꿀, 매, 준마, 안장 갓춤	인삼, 호랑이 가죽, 여우 가죽, 흰 모 시, 흰 무명배, 흰 명주비단, 검은 모 시, 꽃방석	인삼, 흰 모시, 명주 비단, 족제비 붓, 먹
답 례 품 ←	갑옷, 큰 칼, 장검, 병풍, 서랍장	진주, 납으로 만든 화로, 금가투를 뿌 린 벼루집, 깽깽이 풀 약재, 수정 갓 끈	붉은 구리 쟁반, 수정 갓끈, 그림을 넣은 편지 와 문서를 담아두는 케 거울, 금박 병풍, 진주, 옷걸이, 무늬 있는 종 이, 그림이 들어간 서가

이와 같이 미디어로서의 행렬기에는 통신사에 대한 근세 일본인
의 관심사 뿐 만 아니라 통신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엇 볼 수 있
는데, ‘헌상하는 통신사’도 그 중 하나이다.

이하, 단적인 예로 조공사로서의 통신사 모습을 전하고 있는 행
렬기와 회화 작품을 들고자 한다.

4.3 헌상하는 조선통신사

행렬기 『朝鮮人大行列記大全』(1748 延享五年)⁴⁰⁾의 경우, 오사카에
입항하는 통신사절단의 배, 통신사의 숙소인 쓰무라 불당(津村御堂)⁴¹⁾
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교토의 귀 무덤(耳塚)⁴²⁾과 후지산을 지

39)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2005) 『한일공동역사교재 조선통신사』 한길사,
pp.113-114. 참조 작성.

이외에도 통신사는 은장도, 청심원, 화문석, 꿀도 지참한 바 있으며, 1711년
통신사에 대한 답례품의 경우 직위와 역할에 따라 은과 면이 증명되었다.

40) 교토 菊屋七郎兵衛板으로, 권말에 6丁 분량의 통신사 그림을 수록하고 있다.

41) 오사카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쓰무라 별원(津村別院). 통신사절단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42) 교토 호코지(方広寺) 앞에 위치한 귀 무덤. 임진왜란 때 베어간 조선인의 코를
묻은 곳으로 원래는 코 무덤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교토의 명소를 그린 「洛中

나는 통신사 행렬⁴³⁾을 삽화로 수록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장소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인이 지닌 통신사에 대한 이미지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즉, 조선 배에 대한 호기심과 사원에서 살생을 하는 조선인의 야만성, 귀 무덤을 방문하는 통신사⁴⁴⁾와 후지산을 찬양하는 통신사의 모습을 통해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래의 〈그림 9〉와 같이 선물을 헌상하는 장면을 수록하고 있는데, 본 삽화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질감과 위화감을 지적한 바 있다.

통신사를 소재로 하면서도 ‘미나모토노 요시쓰네’가 ‘당인’과 만나는 구상으로 되어 있어, 전혀 다른 서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원래 책 제목 등은 알 수 없다.⁴⁵⁾

그러나, 그림 가운데 설명에는 ‘요시쓰네가 조선 사절과 만나다(よしつねとうせんつかいにあいたまふ)’라고 되어 있으며, ‘기린 뿔’,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금색 국화’, ‘산호 나무’, ‘성성이 가죽’ 등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놓여 있다.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 1159-1189)는 에도 막부의 장군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의도된 장면이 아닌가, 유추된다.⁴⁶⁾ 이 또한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의 단면, 즉 ‘헌상하는 조선

洛外図』에는 이곳을 찾은 통신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43) 이는 통신사 행렬 그림의 주된 화재(画材)이기도 하였다.

44) 仲尾宏 씨는 근세 일본인이 통신사와 귀무덤을 관련짓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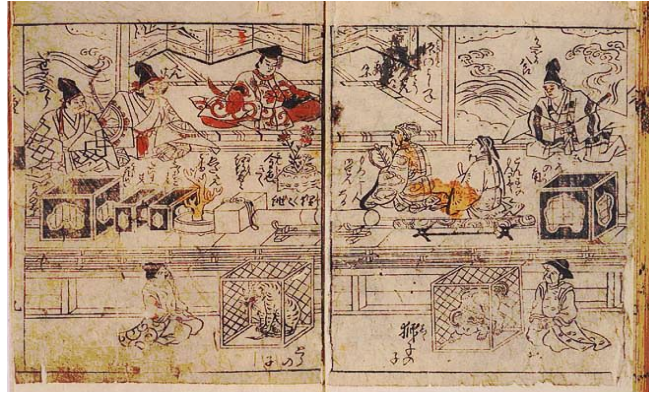
‘항간에는 조선사절 일행이 대불전(大仏殿) 즉, 귀무덤 주변을 들르는 사실과 사절을 내공사로 보는 역사관의 유포로 인해 제사가 행해진다는 설이 후일 퍼졌다. (巷間には朝鮮使節一行が大仏殿すなわち耳塚周辺に立ち寄る事実と、使節を来貢使としてみる史観の流布によって祭事が行われるという説がのちにひろまった。)’

仲尾宏(1992)『朝鮮使節と京都大仏殿招宴問題』『瓜生』15、京都芸術短期大学、p.37.

45) ‘通信使を素材としながらも『源のよしつね』に『もろこし人』が会うという構想となっており、まったくの別書である可能性が高いが、本来の書名等は不明.’
箕輪吉次(2010)『通信使の行列と行列記-朝鮮像の変遷-』『日語日文学研究』72、韓国日語日文学会、p.233.

46) 본 행렬기가 간행된 전 해에 요시쓰네 전설을 소재로 하는 ‘判官物’의 대표작인 『義経千本桜』(1747 延享四年)가 오사카에서 상연되었다. 이후 判官物 작품이 성행하는데, 〈그림 9〉는 그러한 연극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자 한다.

인', '조공사절로서의 통신사'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림 9〉『朝鮮人大行列記大全』(1748延享五年, 京都大学附属図書館)

한편, 통신사가 발신하는 제 정보를 화재(画才)로 하여 기록한 각종 회화 작품들 중에서도 통신사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다음은 에도의 명소를 그린 「江戸図屏風」 가운데, 에도성에 다다른 통신사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림 10〉「江戸図屏風」(에도성, 부분)

본 작품은 1636년의 제 4차 통신사절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⁴⁷⁾ 가죽, 비단, 도자기 등 온갖 진귀한 물품들을 늘어 놓은 통신사의 모습

47) 横山学(1993) 『江戸図屏風をよむ』 河出書房新社、p.83.

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사, 부사, 종사관의 삼사가 에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성의 입구에 예물을 펼쳐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막부의 威光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로 고안'⁴⁸⁾된 것이다. 이 또한 '현상하는 조선인'으로 통신사를 형상화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전통적 大織冠의 세계를 계승하는 한편, 통신사 정보를 소재로 연극화한 지카마쓰의 『大職冠』을 비롯하여, 근세연극의 大織冠物 전개 및 그 가운데 나타난 통신사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大織冠의 세계는 이국 황제와의 혼인으로 비롯된 보물, 이국 사신의 방일, 그리고 용궁과의 투쟁 등 이국 혹은 이계와 인연이 깊다. 한편, 근세연극의 大織冠物에서는 이국에 대한 일본의 자국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국 사신인 만호 장군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모습을 투영시키거나, 혹은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보는 시선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근세 일본인의 이국관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연극과 더불어 통신사 정보를 발신하고, 전파하는 미디어 역할을 한 출판물, 특히 행렬기 자료를 대상으로 근세 일본인의 이국관, 조선상(朝鮮像)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려옥(2013) 「조선통신사 정보와 일본 근세연극 - 통신사 행렬을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61, 일본어문학회, pp.282-292.
 박찬기(2001) 「제2부 「도진고로시(唐人殺し)의 세계와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보고서, pp.115-241.
 차미애(2006) 「江戸時代通信使登城行列図」 『미술사연구』20, 미술사연구회, p.282.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2005) 『한일공동역사교재 조선통신사』 한길사,

48) 차미애(2006) 「江戸時代通信使登城行列図」 『미술사연구』20, 미술사연구회, p.282.

pp.113-114.

箕輪吉次(2010)「通信使の行列と行列記-朝鮮像の変遷-」『日語日文学研究』72、韓国日語日文学会、p.233.

- 麻原美子・北原保雄校注(1994)『舞の本』新日本古典文学大系59、岩波書店、p.17、p.20.
池内敏(1999)『唐人殺し』の世界-近世民衆の朝鮮認識』臨川書店、pp.1-190.
古浄瑠璃正本集刊行会(1990)『古浄瑠璃正本集 角太夫編』第一、大学堂書店、p.363.
古浄瑠璃正本集刊行会(1994)『古浄瑠璃正本集 角太夫編』第三、大学堂書店、p.422.
佐藤恵里・鳥越文蔵編(1987)『江戸板狂言本』古典文庫第四八八冊、p.53.
高野辰之・黒木勘蔵校訂(1925)『元禄歌舞伎傑作集』下、早稲田大学出版部、p.161.
近松書誌研究会(1981)『正本近松全集』第十一卷、勉誠社、p.411. 解題(近石泰秋)
鳥居フミ子校訂(1972)『土佐浄瑠璃正本集』第一、角川書店、p.19.
仲尾宏(1992)「朝鮮使節と京都大仏殿招宴問題」『瓜生』15、京都芸術短期大学、p.37.
原道生ほか3人校注(1993)『近松浄瑠璃集』上、岩波書店、p.328、pp.333-334、
p.390. 解説・脚注(原道生)
原道生ほか3人校注(1993)『近松浄瑠璃集』上、岩波書店、p.334、pp.389-390.
般庵野間光辰先生華甲記念会(1969)『絵入狂言本集』上、近世文芸叢刊、p.30.
藤井乙男著(1927)『近松全集』第九卷、朝日新聞社、p.506. 解説(藤井乙男)
横山学(1993)『江戸図屏風をよむ』河出書房新社、p.83.
朴麗玉(2011)「近松の作品と朝鮮通信使-『大職冠』の場合-」『国語国文』第80巻3号、
京都大学文学部 国語学国文学研究室、p.30、pp.33-35.

古典籍閲覧ポータルデータベース <http://www.dh-jac.net>(2012.10.3.검색)

성 명(한 글) : 박 려 옥

(한 자) : 朴 麗 玉

(영 문) : Park, Lyo-Ok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n The Korean Delegations to Japan and
Japanese Drama in the Edo Period

소 속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전임 연구원

E-mail : dorothy0509@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